

글씨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고전 깊이있게 공부해야”

서력 51년 정광주 서예가 작품전
7~12일 예술의거리 광주미술관
서예 작품 명구 100선 엮은
‘꽃을 보며 새소리 듣네’ 발간도

장자의 가르침 가운데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물을 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학문과 예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돌아보니 지난날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올해로 서력 51년을 맞은 금초 정광주(72) 서예가. 그에게선 전형적인 선비, 묵향의 이미지가 배어나온다. 차분한 어조로 ‘서예’에 대해 얘기하는 그의 모습은 천상 선비다. 유한 느낌이지만 말에선 울분과 반듯함이 느껴진다.

어느 한 분야, 그것도 예술 분야에 반백년 넘게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루에 한 시간씩 서예를 했다 해도 1만8250시간을 투자한 셈이다. 2시간씩 정진을 했다고 하면 3만6500시간이다. 굳이 1만 시간의 법칙을 거론하지 않아도 그가 써온 글씨, 그 글씨에 투영된 정신이 어찌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서예를 공부하면서 문사철이 약하면 결국 철학의 빈곤에 봉착할 수 있다”며 “격이 높은 서예를 펼치기 위해선 성현들의 가르침을 글씨에 담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했다.

광주예술의 거리에 있는 광주미술관에서 전시회(7일부터 12일까지)를 여는 금초 정광주 작가를 만났다. 작품 설치에 여념이 없는 그를 만나 전시를 열게 된 계기, 지금까지의 활동을 비롯해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작가는 글씨를 쓴다는 생각을 초월해 글씨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를 늘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글씨의 예술적 변형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요. 명언명구를 비롯해 고전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그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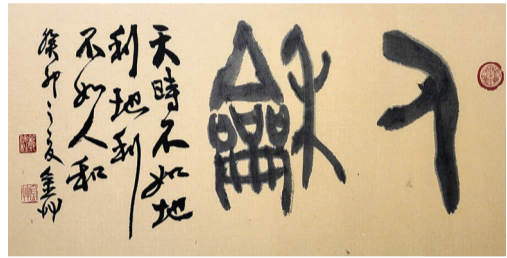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지난 2022년 광주문화예술상 분상(외재미술상) 수상과 관련, 저서 발간을 계기로 기획됐다. 정 작가는 서예작품 명구 100선을 엮은 ‘꽃을 보며 새소리 듣네’를 발간하고, 그것과 맞물려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됐다.

책에는 노자, 장자의 도가사상은 물론 논어, 맹자, 순자, 주자 등 유가 철학에서 교훈이 될 만한 글귀 등을 가려 뽑은 문구들이 수록돼 있다. 한비자의 법가사상과 금강경 법구경, 원효선사와 창허선사 등의 유와 무, 생과 사를 조탈한 불교철학과 관련된 명구들도 있다.

“옛 성현들의 충언을 서예 작품을 통해 읽다보면, 책 제목처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는 느낌과



광주미술관에서 7일~12일까지 전시회를 여는 금초 정광주 서예가가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人和’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음과 귀를 맑게 하는 청량함을 받는다면 작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지요.”

전시실을 둘러보다 마음판에 새겼으면 하는 명구들과 마주한다. 그저 스티치와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가만히 몇 개의 문구를 읊조려 본다.

“爲者常成 行者常至 (위자상성 행자상지-실행하는 자만이 항상 큰일을 이루고 씬 없이 전진하는 자만이 항상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이른다, ‘晏子春秋’) 꾸준히 노력하며 실행을 하다보면 비로소 큰일을,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작만 요란하고 끝맺음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금초는 전서와 예서를 주로 써왔다. 고안한 맛이 나는 것이 전서라면, 예서는 서민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서체다.

“서예를 하기 위해선 전서체에 토대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반전을 만들 때도 오래된 간장, 고추장 등 양념을 써야 고유의 맛이 나겠지요. 마찬가지로 서에도 고아한 전서에 대한 공부도 있어야 전통의 미를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의 말은 자연스레 전시장에 내걸린 주자의 말을 떠올리게 했다. ‘葉如枇杷樹 巡山摘酸梨’

‘(가각점도수 순산적초리-집 마당의 단 복숭아 나무를 두고 온 산 헤매며 신 들배를 따라 다니네)

사실 오늘의 풍조가 그러한 면이 없지 않다. 정작가는 “진리와 깨달음을 밖에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과 내부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찾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신과 문화를 지켜가면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야 세계화할 수 있지, 외국 것만 받아들이다 보면 정작 소중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맛과 멋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조선대 영어과를 졸업한 그는 대학 3학년 때 서예동아리를 만들었다. 졸업 후 잠시 교사로 근무했지만 결국 서예의 길로 들어섰다.

“학정 선생님과 보성 출신 송곡 안규동 문하에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대학 동아리활동을 하면서는, 제가 가르칠 수 없으니가 학정 선생님을 모시고 화원들과 함께 배웠어요.”

정 서예가의 글씨는 투박하면서도 꾸밈이 없다. 그림에도 과감한 독창성이 엿보인다. 필법만 강조하지 않는다. 붓맛보다는 먹맛에 치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붓을 가지고 기교를 부릴 수 있지만, 그러다보면 먹의 깊고 중후한 맛을 따라갈 수 없다.

그는 서예뿐 아니라 전통미술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강조했다. 그가 주축이 돼 만든 ‘광주전통미술연합회’에는 서예를 비롯해, 한국화, 문인화, 민화 부문에 약 60명이 소속돼 있다.

“매년 전통 미술에 업적을 남긴 선배원로 1명씩을 추대해 상을 하고 있어요. 일련의 활동이 계기가 돼 우리 것에 대한,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됐으면 합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월드뮤직 밴드 ‘두번째 달’

‘크로스오버 음악’의 향연

‘김준수X두번째 달’ 콘서트, 15일 광주예술의전당

세태 불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크로스오버 음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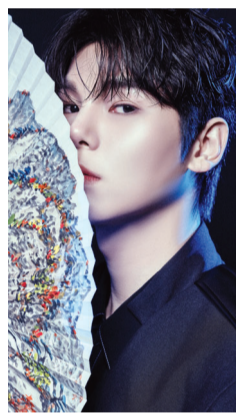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이 예술을 매개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선보여 온 기획 공연 포커스(FOCUS)가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있다. ‘김준수X두번째 달’ 콘서트가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김준수와 두번째 달이 총 13곡을 크로스오버해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두번째 달의 연주곡 ‘Modena’로 막을 열고, 아일랜드 마을의 이름을 따 만든 ‘고리’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사찰가’, ‘육자배기’, ‘적성가’, ‘군로사령’ 등 우리 전통이 깃들여 있는 곡도 감상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 등에 실리면서 대중화된 ‘돼지나 창치 나네’도 레퍼토리에 있다.

2017년 발매한 두번째 달의 앨범 ‘판소리 춘향가’에 김준수가 피쳐링했던 ‘어사출두’도 기대를 모은다. “해 같은 마패를 달 같이 들어매고 / 달 같은 마패를 해같이 들어매고 / 삼문간을 두 다리며 암행어사 출두야” 등 긴박한 가사가 이목을 끈다.

소리꾼 김준수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9-4호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로, 2013년 국립창극단에



소리꾼 김준수

최연소 입단했다. JTBC 풍류대장(2021)에 출연해 준우승, KBS 국악대상(2022) 대상 등을 수상하면서 국악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국립창극단 단원.

2005년 첫 앨범을 시작으로 MBC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궁’ OST 등으로 이름을 알린 두번째 달은 CF, 뮤지컬 음악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여러 나라의 민족음악을 재해석해 친근한 방식으로 들려주는 팀이다.

광주예술의전당 홍보 담당자는 “전통과 현대음악이 맞물리는 ‘크로스오버’의 최신 흐름을 들려주는 두 팀을 초청했다”라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희망의 하모니 ‘대화합 합창 축제’

광주시립합창단, 7일 광주예술의전당...광양시립합창단 등 협연

한 해의 끝을 바라보는 12월, 희망찬 새 해를 기원하는 합창 축제가 열린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제194회 정기연주회 ‘대화합 합창 축제’를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연다. 광주시립합창단원들이 독창자로 출연하며, 광양시립합창단, 문화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할 예정이다.

베토벤의 ‘합창 환상곡’이 막을 연다. 피아노 독주로 시작한 뒤 오케스트라, 합창이 차례로 등장하는 작품으로 정식 명칭은 ‘피아노와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 미국 보스턴음대, 러시아 그네신 국립음대 등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조영웅이 연주한다.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2막 2장에 나오는 ‘개신행진곡’도 들을 수 있다. 이집트 군대가 승리할 때 군중들이 부르는 혼성 합창곡으로, 화려한 트럼펫의 소리가 이목을 끈다.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도 레퍼토리에 있다. TV 광고 등에 자주 등장해 익숙한 곡이다.

대미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 장식할



객원지휘자 이근우

다. ‘합창 교향곡’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곡으로 사랑, 평화, 기쁨 등을 주제로 창작한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악곡에도 입한 작품이다.

전남대,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 석, 박사 등을 졸업한 객원지휘자 이근우가 지휘를 맡는다. 슈베르트 국제콩쿨에서 1위로 입상했으며 노벨평화상 정상회의에서 독창했던 소프라노 김선희도 출연할 예정이다.

광주예술의전당 모성일 팀장은 “클래식 음악과 합창이 전달하는 따뜻하고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하모니’를 즐기며,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조각가 김영민, 무등미술대전 문체부 장관상

서양화 강나연·한국화 장영순 대상

최근 심사를 마친 제39회 무등미술대전에서 김영민(대전) 작가의 ‘tetrapod moon’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강나연의 ‘소멸의 기쁨과 슬픔’, 한국화 부문 장영순의 ‘여름날의 고향’, 문인화 부문 손수월의 ‘가을향기’, 수채화 부문 박진숙의 ‘마중’, 공예 부문 김군선의 ‘달항아리’, 서예 부문 임지선의 ‘퇴계선생 시’가 부문별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제39회 무등미술대전 수상작이 발표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점, 대상 7점, 우수상 29점, 특선 368점, 입선 845점 등 총 1250점이 입선했으며 문화부 부문은 대상작품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번 무등미술대전은 총 2071점이 출품돼 지난 해보다 515점이 늘어난 역대 최고의 출품수를 기록했다.

심사는 지난달 30일 광주비엔날레관에서 진행됐다. 심움택(충남대 교수) 심사위원장은 “제39회 무등미술대전은 한국화를 비롯해 서양화, 문인화, 수채화, 서예, 공예 등 창의성이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됐다”며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기에 향후에도 무등미술대전이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무등미술대전은 지난 1985년 지방미술문화의 향상발전과 전국 미술인의 등용문을 기치로 시작했다. 전체 입상작은 (사)광주전남발전협의



김영민 작 ‘tetrapod moon’

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부문별 대상, 우수상 수상자 명단

▲한국화=대상 장영순 ‘여름날의 고향’, 우수상 김혜숙·이설·김기훈 ▲문인화=대상 손수월, 우수상 지일령·장현숙 ▲서양화=대상 강나연, 우수상 류현정·이승기 ▲수채화=대상 박진숙 ‘마중’, 우수상 유순화·신지연 ▲판화=대상 없음, 우수상 박경화·왕내경 ▲조각=장관상 김영민 ‘tetrapod moon’, 우수상 권여경·김민정 ▲공예=대상 김군선 ‘달항아리’, 우수상 문홍식·서미연·소중환·나백균·고경애.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설 신명주의보’

무등풍류연, 9일 전통문화관

일 년 중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12월 7일)이 목전까지 다가왔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대설을 맞아 올해 마지막 무등풍류연 행사 ‘대설 신명주의보’를 연다.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전통문화관에서.

이번 행사는 겨울 분위기에 걸맞은 크리스마스곡과 더불어 어린이 구연동화,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먼저 오후 1시 입장당에서는 우리 전통동화 ‘줄줄이 똥 꼬랑이’를 구연동화로 들려준다. 전통 민속놀이 도구 ‘바나’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선착순 30명 접수.

같은 날 오후 3시 서석당에서 민요 연곡, 판소리, 가야금병창 등을 감상하는 ‘송년 국악 한마당’도 열린다. 이경진, 김유빈, 이다은 등의 ‘아리랑’, ‘동해바다’가 레퍼토리에 있다.

소리꾼 송재영은 판소리 동초계 춘향가 중 ‘어사출두 대목’을,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황승욱과 제자 15명은 창작 소리극 ‘1.5도 지구의 위기’를 가야금 병창으로 연주한다.

이외 ‘박병천류 진도북춤’은 무용수 강은영이 추며, 경기민요는 이호연이 부른다. 오은수(가야금), 문상준(피리)도 출연해 ‘노랫가락’, ‘정춘가’, ‘장부타령’을 연주한다는 계획. 끝으로 관객과 함께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과 체험 모두 무료. 신청 및 문의는 전통문화관으로.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